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대형 우량주 중심의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 리스크관리팀에서 금융공학기법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구성 프로세스 확립, 위험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제공 및 운용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운용업무 및 포트폴리오 위험관리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157억 원

펀드유형 주식형
-주식 편입비 : 60% 이상

설정일

(운용펀드 : 2004년 12월 21일)

- 클래스 A : 2010년 08월 12일
- 클래스 A-E : 2014년 06월 11일
- 클래스 C : 2010년 07월 26일
- 클래스 C-E : 2012년 02월 13일
- 클래스 C-P2(연금저축) : 2015년 08월 20일
- 클래스 C3 : 2010년 10월 25일
- 클래스 C4 : 2010년 10월 25일
- 클래스 C5 : 2010년 10월 25일
- 클래스 S : 2014년 04월 22일
- 클래스 S-P2 : 2017년 05월 23일

벤치마크 KOSPI 100%

신탁업자 SC제일은행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5시 30분 이전	2영업일	4영업일
15시 30분 경과후	3영업일	4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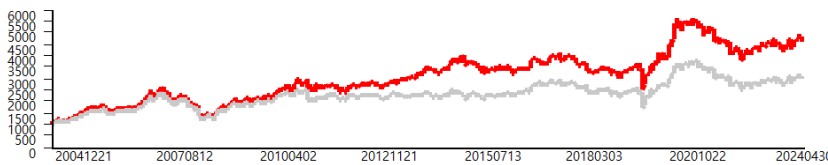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	---	---	---	---	---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설정이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운용펀드	-0.23%	11.86%	19.56%	10.58%	4.95%	-9.34%	42.87%	383.47%
클래스 A	-0.37%	11.42%	18.62%	8.79%	1.48%	-13.80%	31.37%	79.29%
클래스 A-E	-0.33%	11.55%	18.90%	9.32%	2.50%	-12.49%	34.73%	35.40%
클래스 C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클래스 C-E	-0.38%	11.40%	18.57%	8.69%	1.28%	-14.06%	30.71%	45.80%
클래스 C-P2(연금저축)	-0.35%	11.49%	18.76%	9.06%	1.99%	-13.15%	33.05%	16.77%
클래스 C3	-0.39%	11.35%	18.44%	8.44%	0.83%	-14.36%	29.62%	62.15%
클래스 C4	-0.39%	11.37%	18.51%	8.58%	1.06%	-14.35%	29.94%	64.23%
클래스 C5	-0.38%	11.40%	18.57%	8.68%	1.27%	-14.06%	30.71%	67.04%
클래스 S	-0.32%	11.57%	18.93%	9.38%	2.62%	-12.35%	35.07%	42.01%
클래스 S-P2	-0.30%	11.64%	19.08%	9.66%	3.16%	-11.69%	-	49.92%
벤치마크	-1.99%	7.81%	18.18%	7.62%	-0.11%	-14.48%	22.17%	204.42%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환한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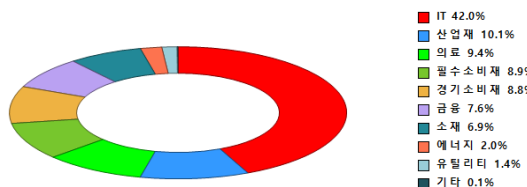
출처: AITAS 시스템

자산 구성 현황 (2024년 04월말 기준)

<전체>



<주식 업종별>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4년 04월말 기준 주식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삼성전자	전기,전자	21.1	삼성바이오로직스	의약품	2.3
SK하이닉스	전기,전자	5.9	테크윙	반도체	2.1
현대차	운수장비	4.1	두산에너빌리티	기계	2.1
삼양식품	음식료품	4.0	LG에너지솔루션	전기,전자	2.0
셀트리온	의약품	2.3	기아	운수장비	2.0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약속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A : 총 연 1.675% (판매 0.9%)
- 클래스 A-E : 총 연 1.175% (판매 0.4%)
- 클래스 C : 총 연 2.275% (판매 1.5%)
- 클래스 C-E : 총 연 1.775% (판매 1%)
- 클래스 C-P2(연금저축) : 총 연 1.425% (판매 0.65%)
- 클래스 C3 : 총 연 2.025% (판매 1.25%)
- 클래스 C4 : 총 연 1.905% (판매 1.13%)
- 클래스 C5 : 총 연 1.775% (판매 1%)
- 클래스 S : 총 연 1.125% (판매 0.35%)
- 클래스 S-P2 : 총 연 0.975% (판매 0.2%)

(공통사항)

운용 0.72%, 신탁 0.04%, 사무관리0.015%

선취수수료

- 클래스 A: 납입금액의 1.0% 이내
- 클래스 A-E: 납입금액의 0.5% 이내
- 클래스C/C-E :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4월 KOSPI는 전월 대비 1.99% 하락한 2,692.06pt, KOSDAQ 은 4.04% 하락한 868.93pt로 마감하였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진 가운데 중동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월간 증시는 하락세로 마감하였습니다. 견조한 고용시장에 힘입어 미국 경기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여전히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물가는 긴축 완화 기대감을 되돌리며 증시 조정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양호한 수출 성장세를 보인 화장품, 미중 갈등에 반사 수혜가 예상되는 조선, 전력 인프라 투자 증가로 호실적을 보인 기계 업종 등이 상승세를 보인 반면 차익실현에 따른 반도체 업종 추가 조정, 낮아진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의약, 인터넷 업종 추가 부진 등은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월 대비 약세를 이어가며 1,382원으로 마감하였고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도 불구하고 WTI 기준 국제 유가는 83.49달러로 전월 대비 소폭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월간 국내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 및 국내 개인투자자는 각각 약 2조4천억원, 약 1.7조원의 순매수를 보인 반면 국내 기관투자자는 약 3.9조원의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중동 지정학적 긴장 고조, 미국 금리 인하 시기 지연, 한국의 기업가치 제고 정책에 대한 기대감 둔화에 따라 일부 위험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반도체, 전자부품 등 일부 금리 민감 업종과 기업가치 제고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은행, 보험 업종의 비중을 축소하였고 경기방어적 성격이 부각되는 음식료, 화장품 업종의 비중을 상향하였습니다. 1분기 실적 시즌에 대비하여 실적 모멘텀과 밸류에이션 매력에 부각되는 업종 및 종목의 비중을 상향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음식료, 전자부품, 기계 업종 등이 긍정적으로 기여하였으나 보험, 반도체, 조선 업종은 펀드 성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종목별로는 삼양식품, LS Electric, 한양디지텍 등이 긍정적으로 기여하였으나 미코, 동국산업, 알테오젠 등 개별 종목이 성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5월 국내 증시는 전월 조정세를 딛고 상승세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수출 성장세가 업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국내 증시에 긍정적입니다. 연초 이후 반도체, 자동차 중심의 수출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고 장기간 부진했던 대중국 수출 또한 최근 개선흐름을 보이고 있어 이익 개선 업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가 안정세, 달러 대비 원화 약세 기조, 반도체 가격 상승 추세로 인해 수출의 경기성장 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융당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들의 주주친화적 경영 및 주주환원을 제고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보여 증시 안정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전히 더딘 물가 하락 기조로 인해 긴축적인 통화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경계 요인이나 양호한 미국 경기 흐름과 개선세를 보이는 중국 경기 등 안정적인 거시 경제 환경이 증시 회복을 이끌 것으로 전망합니다.

실적 모멘텀을 보유하면서 저가 매력이 부각되는 업종과 종목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업종의 수출 성장은 지속되는 가운데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어 시 관련 업종 및 종목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자동차 업종의 경우 일부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상황이지만 원화 약세 환경과 제한적인 인센티브 지급, 주주환원의 의지를 감안하여 당분간 높은 비중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만, 원화 대비 엔화 약세의 속도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어 일본과의 수출 경쟁력에서 열위에 위치해 있을 가능성에 유의할 계획입니다. COVID-19 이후 3월 방한관광객은 약 150만명 수준에 달하며 전년 동월 대비 86% 성장하였고, 19년 3월 대비 회복률이 97% 수준에 달함에 따라 인바운드 관련 업종 및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분기까지는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관련 업종 및 종목에 대한 비중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비중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실명 매출이 일부 출회되었으나 향후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조정 시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중국향 수출이 일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 등 소비부양책 실시로 인해 중국 경기의 회복 가능성에 대해 유의하며 대응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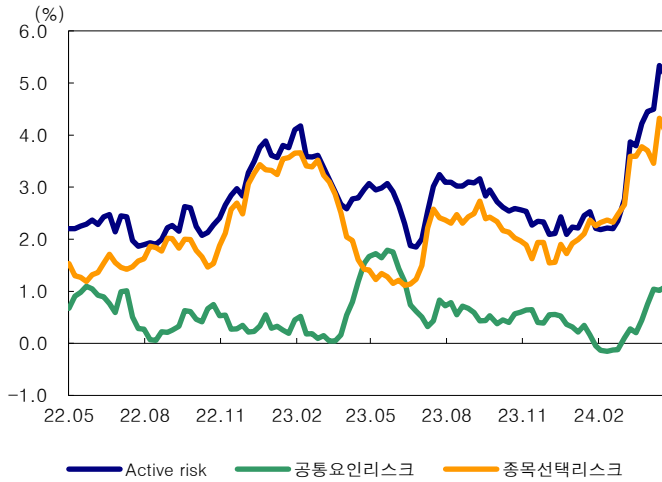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시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

리스크 구성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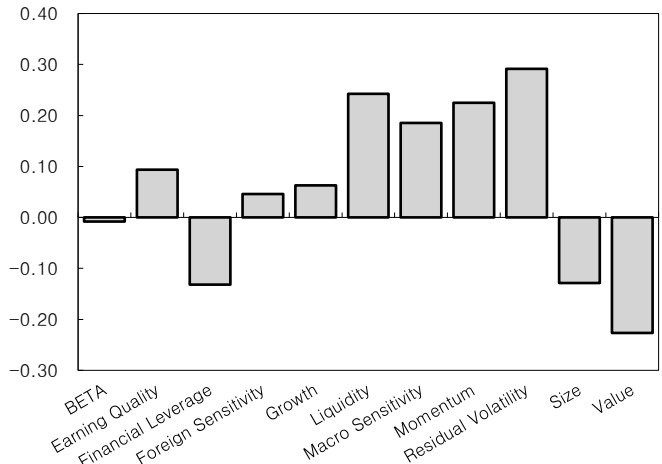
	2024-04-30	2024-03-29
Active Risk ¹	5.28%	4.22%
공통요인 리스크 기여도 ²	1.17%	0.44%
- 스타일 리스크 기여도	0.74%	0.04%
- 섹터 리스크 기여도	0.42%	0.41%
종목선택 리스크 기여도 ³	4.12%	3.78%
베타	0.82	0.96

1. Active Risk는 벤치마크 대비 펀드의 초과 수익률에 대한 변동성으로 공통요인 리스크와 종목선택 리스크로 구분됩니다. Active Risk 수치가 높을수록 펀드가 벤치마크에 비해 적극적으로 운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공통요인 리스크는 스타일 및 업종 리스크와 공통요인간의 상관관계로서, 주식시장 전반에 미치는 리스크를 의미 합니다.
3. 종목선택 리스크는 경영성과, 노사분규 등과 같은 개별기업의 특수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리스크로서 공통요인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기업 고유의 리스크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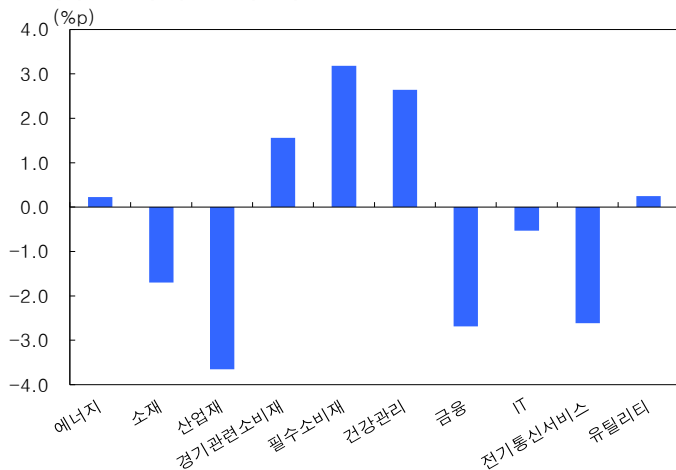
<Active Ris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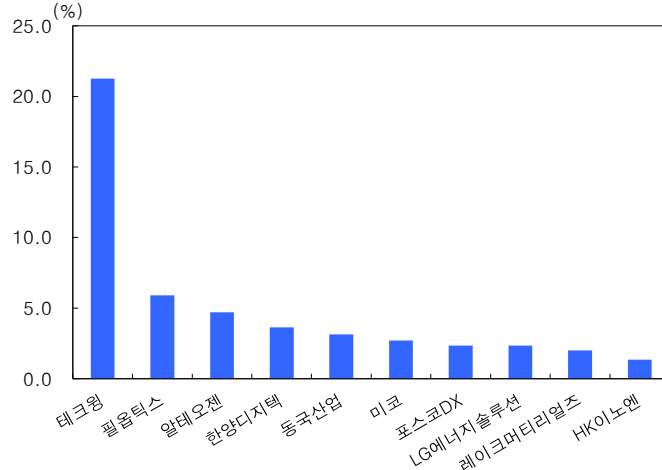
<벤치마크 대비 스타일 비중차>



<벤치마크 대비 섹터별 비중차>



<종목별 리스크 기여도>



분석 결과

*종목별 리스크 기여도는 3월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4월말 현재, 업종일등증권1[주식] 펀드의 Active Risk는 5.28%로 전월대비 증가하였습니다.
- ▶ 종목수는 전월대비 4개 종목 감소하여, 81개 종목을 유지하고 있고,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성향은 변동이 없었으나, 벤치마크 대비 '필수소비재', '금융' 등의 비중 차이는 증가하였고, '산업재', 'IT' 등의 비중 차이는 감소하였습니다. 종목 기준으로 본다면, 3월말 기준으로는 '테크킹' 등의 리스크 기여도는 상승하였고 '포스코DX' 등의 리스크 기여도는 하락하였습니다.
- ▶ 종목 선택으로 인한 리스크는 전월대비 증가하였고, 종목집중 위험은 적절하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 ▶ 동펀드는 'Value'보다는 'Residual Volatility'가 높은 스타일의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약속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